

元老
와의
대담

한국 과수원예학 개척한 先覺者

독립운동가로도 활약한

金聲遠 박사

대담/朴澤奎 <건국대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한글版 과수책자 저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농대학장을 그만두신게 1972년입니다. 당시를 회고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선생님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곧으신 자세에 한점 흐트러짐 없는 선생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선생님 이 책은 1938년에 발간된 「실험 조선과수재배법(實驗 朝鮮果樹栽培法·訂補版)입니다. 이 책은 조선어로 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36년에 초판이 발간되고 그 이후 3판까지 나왔지요. 1928년에 수원고농(현 서울대농대)을 졸업한 후 10년 가까이 고향에서 과수원을 직접 경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이지요. 33세 때 나온 책으로 과수재배의 가치와 그 특색, 기초요건, 과수의 비료, 병충해구제법, 과수류의 저장법 등 이론과 실제경영을 그 내용에 전부 담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할런지 책값이 4원이었는데 당시 쌀 한가마에 3원이었으니 꽤 비싼 책이었어요. 그런데 인세가 자그마치 1만원으로 당시 함남 최고부자인 한시은(韓時銀)씨 재산이 3백만원이



수우리나라 과수원예학의 선구자인 김성원 박사(右)을 가 박택근(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있다고하니 큰 돈을 받은 셈이지요. 이 인세로 새집을 지었는데 부전고원에서 목재를 4천원어치 사니 한 화차에 가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해서 이 책의 한글을 다듬어 주었다는 겁니다. 최현배, 이희승, 이극로 선생 등 조선어학회의 선지자들이 직접 교정을 봐주셨어요.

최현배씨등 직접교정

선생님께서 특별히 과수원예학을 택하신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어릴 적 이야기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1906년에 함남 함주군 천서면 원봉리(咸州郡 川西面 圓峯里)에서 태어났는데 조부 김정필(金鼎弼)께서 훈장을 하시다가 함주군에 보통학교를 설립하시고 엄친 김용준(金容濬)께서는 한말에 서울에 와서 공업전습소(고공)를 졸업하신 비교적 개화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 보통학교에 입학했지요. 1919년에 함흥고보에 입학했는데 이때 기미만세 사건이 일어날 때라 나도 길가벽에 대한독립만세의 벽보를 붙이는 등 만세운동에 참가했어요.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내 머리는 독립운동사상으로 가득찼지요. 5년제



鍾徽선생님(당시 고농3년재학)도 계십니다. 선생님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고농 재학시절에 3년여동안 농촌 운동을 했습니다. 야학을 하면서 문맹퇴치도 하고 독립사상을 농민들에게 고취시켰지요. 최남선선생을 찾아가서 우리들의 농촌운동을 설명하였는데 10여차례 방문, 크게 격려를 받았어요.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농촌중심의 독립사상전파운동을 했는데 최남선선생이 작사해 주신 개척사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지요.

「세계문화의 첫 빛은
 팥이 만드는 날 생겼다.
 단군이 헤친 흙에서
 문명의 조선 나왔네」

학교 기숙사에 모이면 이 노래를 부르고 야학에 가서도 이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이 비밀결사가 발각되었어요. 당시 조선개척사 구성원들이 졸업하게 되니까 재학생들이 오동메달을 선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일본연호 대신 「단기4261」라는 단기연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비교적 좋았던 내가 졸업후 김해농업학교에 교사로 취직해서 학생들에게 기회 있는대로 독립정신을 역설했지요. 그해 5월1일 김해에 사는 많은 일본인들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나더러 축사를 하라고 하기에 등단하여 항상 가슴 밑바닥에 흐르고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서슴없이 열변했지요. 빼앗긴 나라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에 사무쳐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천리 금강산의 주인으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어갈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해방과 자유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함흥고보를 1925년에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상해의 김구식선생에게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선생님께서 오라는 답신이 왔어요.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극구 말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차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국농촌을 개발시키는 것도 독립운동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수원고농에 입학했어요. 당시 수원고농 재학생중 2/3이상이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조백현 선생님이 유일한 조선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농재학시절에 원산에 가서 과수원을 보았어요. 1901년에 윤병수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5정보정도의 학농원(學農園)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25년 당시 20여년 지나니 탐스러운 사과열매가 달려서 관심을 끌었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농을 졸업한 해에 수원에서 묘목을 1개당 5전씩 1천

본을 사고 함흥시의 함주군에 1만5천평의 야산을 1백50원에 샀어요. 이것이 함주군 과수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지요. 그후 함주군에 많은 과수원이 생겼지요.

조선개척사사건 獄苦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랑스러운 광복회원이십니다. 독립기념관에도 수원고농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사건 기록이 전시돼 있습니다. 1928년 9월 당시 동아일보 2면 기사를 보면 「전 조선농민층 망라 중대계획중 발각」이라는 큰 제목과 함께 「농촌야학세워 ○○사상고취」라 해서 수원고농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 조선○○운동을 농민들에게 선전하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라는 것이 「독립」이라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기사화하지 못했어요. 11명의 연루자가 구속되고 선생님이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의 친구 禹英濟변호사(현 원산시민회장)의 선친 禹

김병로선생이 변호말아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놀랐고 어쨌든 나는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김해의 내 자취방을 수색하였던 경찰은 수원고농기숙사생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발견, 조선개척사 결성의 초안과 농촌야학 전담회관계 등이 적힌 증거를 모두 압수하였어요. 졸업기념메달의 단기연호도 증거가 되었지요. 11명의 수원고농기숙사생들이 구속되어 이른바 제1차 고농사건, 조선개척사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농민 야학을 세워 독립운동을 고무 이면활동 3개성상」의 큰 제목을 달아 사건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지요. 이 사건으로 2년간 부산감옥에서 복역하였는데 당시 이인, 김병로, 신태약선생이 변호를 담당, 단순한 학생들의 비밀결사 사건이 아닌 전민족의 항일투쟁으로 발전시켜 크게 주목을 받았어요.

출옥한 후에는 서울의 기독교단체에서 농촌운동을 활발히 하기에 여기에 참가하였지요. 장로교총회에서 농촌기술책임자 농업간사 등을 맡아 전국을 누비면서 강습, 강연을 했어요. 조만식선생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였고 상해에서 압송되어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후 출옥한 도산안창호선생과도 함께 강연하러 다녔어요. 이 당시를 회상하면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다닌 데 없었어요.

전국누비며 계몽운동

선생님께서 기미만세사건을 목격하시면서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직접 체험하였고 스스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생동안 몸바쳐 오셨습니다. 수원고농사건에서 특별히 감명 깊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고농 기숙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여 생활하였는데 조선학생 기숙

사에서 개척사를 조직했고, 그때 8할이 농민이었으므로 독립사상을 널리 전파시키는 일은 농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김해에서의 측사가 발단이 되어 우리들의 일이 발각되었는데 수원경찰서 고등계형사 수십명이 고농기숙사를 포위습격하여 검거했어요.

연루자 전부가 의연히 재판에 임했는데 이인(李仁)선생의 변호는 가히 일품이었지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전제, 이를 탄압하려는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을 준엄하게 따지는 변론은 우리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어요. 양부모(일본인)의 학대에 원부모(조선)를 그리워하는 것은 양자의 당연한 심리가 아니냐고 일인재판장과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이인선생은 이 변론이 말썽이 되어 결국 6개월간의 변호사정직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단아하시고 조용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 그토록 투철한 독립정신, 농민사랑의 정신을 구현하시고, 투철한 민족애로 일생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시는 것을 보면 모든 분들이 추앙하는 마음 매우 큼니다. 1935년에 출판된 중요작물재배요람을 비롯해서 20여권의 저서를 출판하셨고 사과재배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왜화(倭化)사과를 국내에 처음 보급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71년에 사과왜화재배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유럽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왜화사과는 기후변화가 적어서 사과꽃이 잘 피지않는 독일, 영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요. 뿌리 자체가 작아서 많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 사과를 다량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왜화사과는 많이 보

급되었지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뚜렷해서 과일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누런색의 참배, 푸른색의 청실리(靑實梨)가 유명하고 밤도 우리나라가 최고지요. 근래 과일값이 떨어져서 과수원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이 곤경에 빠져 있는데 농민들 스스로의 자구책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의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아들까지 3대가 장로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 두터우시고 현재 장로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오랜 세월동안 투철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교회를 통한 봉사활동 농민을 위한 농촌운동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바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선친께서는 수원에 서둔장로교회(西屯長老教會)를 세우신 장로이셨고 나도 장로이고, 서울대농대를 졸업한 아들 승철(承哲)이도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서둔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3대가 장로라는 데 대해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몸바치셨고 농촌계몽, 문맹퇴치 등을 통해 당시 조선인들을 인도하신 선생님의 거룩하신 일생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과수연구에 바치신 일생, 그리고 대학교육과 연구에서 쌓으신 많은 업적들도 길이 남을 것입니다. 건강속에 큰 기쁨과 보람에 가득찬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